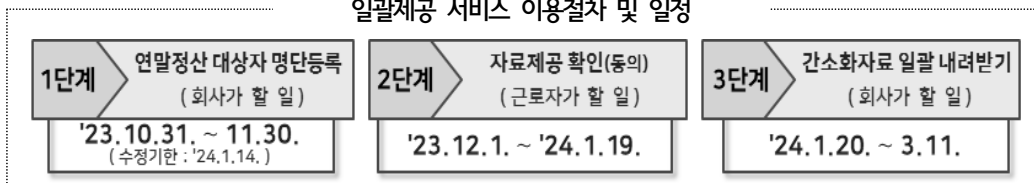


#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, 미리 준비하세요.

— 국세청, 2023. 11

-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」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  -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,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-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,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(동의)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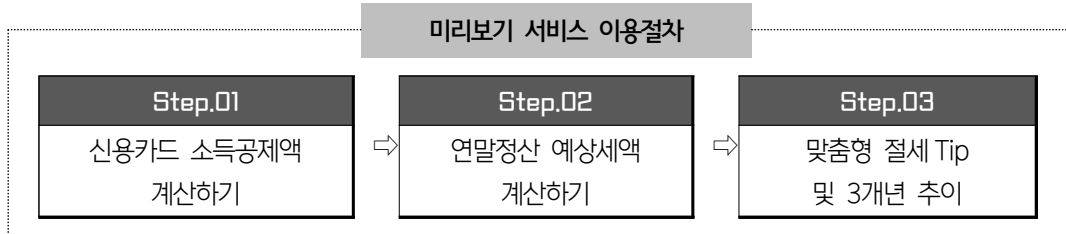
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「국민의 국세청, 신뢰받는 국세행정」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

## I 「연말정산 미리보기」로 절세전략을 세우세요.

-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·저축상황을 점검하고,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.
  -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,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,
  -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,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기부 의사 · 저축 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·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


□ [Step.01]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
- (개요) 미리 채움으로 제공되는 '23.1~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~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(활용) 결제수단 · 사용처별 ①공제율이 상이하므로,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②현금영수증 ·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
  - ① 신용카드(15%), 현금영수증 · 도서 · 공연 등(30%), 전통시장(40%), 대중교통(80%)
  - ②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'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' 검색하여 신청 (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)

□ [Step.02]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
- (개요)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,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(납부)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(활용) 인적공제, 보험료 · 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 ·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
  - \* 기부·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(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)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[연 600만 원 (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)] 활용

□ [Step.03] 항목별 절세 도움말 (Tip)

- (개요) 최근 3년 공제액 ·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,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.
- (활용) 연금저축 · 교육비 ·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 · 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.

□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홈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에 접속하여 공동 ·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
- ② 접속 후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> 편리한 연말정산 >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



## II

## 「맞춤형 안내」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.

- 「맞춤형 안내」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,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「연말정산 미리보기」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.



## 맞춤형 안내대상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!

- 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
  - 기업의 업종·자산규모·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
  - 근무이력·병역자료·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
- ② 교육비 세액공제
  -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
- ③ 월세액 세액공제
  -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·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·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
    - ▶ 주택요건 :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
-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  -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
    - ▶ 주택요건 : 기준시가 5억 원 이하
- 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
  -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
    - ▶ 주택요건 : 국민주택규모 이하
- 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  -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·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

-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.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\*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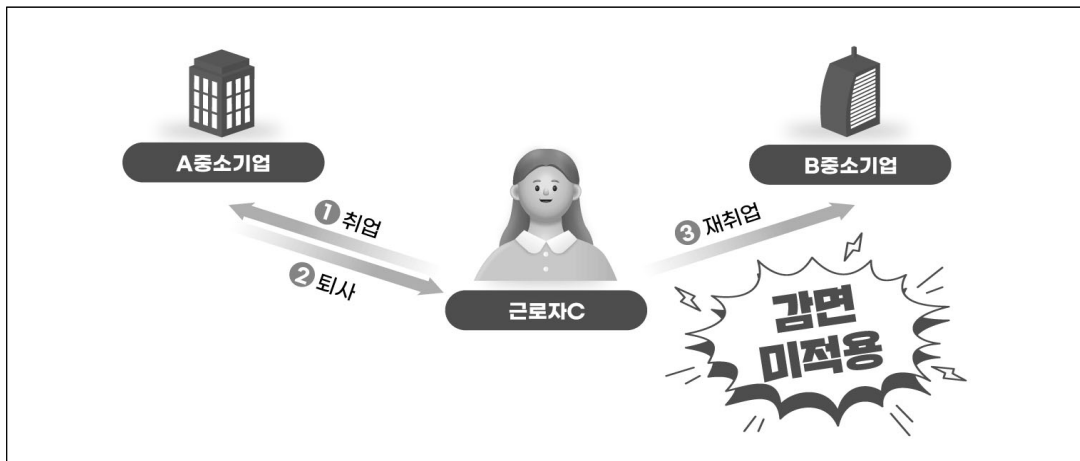
\* 사례 : (안내)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월세 공제 가능 → (실제)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

## 〈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〉

###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, 청년 사례 ❶ 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

※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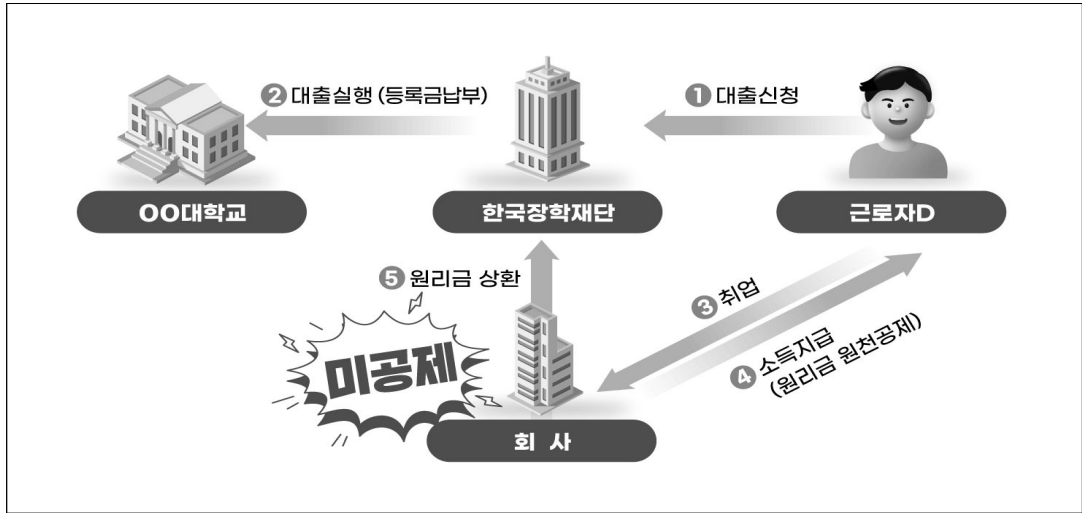


안 내	▶ 감면 요건				
	구분	요건	감면 기간	감면 율	감면 한도
	청년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	5년	90%	과세 기간 별  200 만 원
	고령자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	3년	70%	
	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			
	경력 단절 여성	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~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(최대출자자, 대표자)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			
절 세 효 과	☞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2백만 원 (산출세액 3,002,000원 가정) ▪ 3,002,000원 × 70% = 2,101,400원(한도 2백만 원)				



## 교육비 세액공제

사례 ②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2022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,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



안 내	▶ 공제대상 및 금액		
	구 분	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	일 반 교육비	본 인	한도 없음
		부양가족* (나이제한 없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: 1명당 연 300만 원</li> <li>대학생 : 1명당 연 900만 원 (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)</li> </ul>
	장애인 특수교육비 (직계존속 포함, 소득제한 없음)		한도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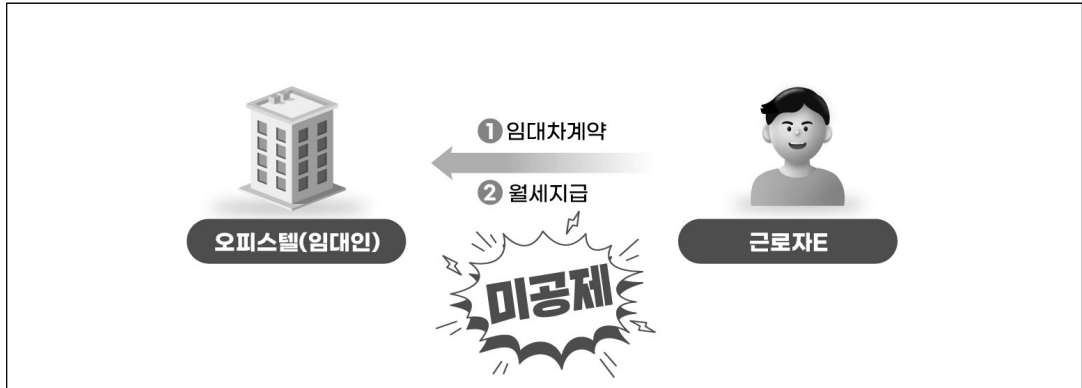
\*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

절 세 효 과	☞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90만 원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,000,000원 (50만 원×12개월) × 15% = 900,000원</li> </ul>			

##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

### 사례 ③

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,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음



### 안 내

#### ▶ 공제대상자

- 총급여 7,000만 원\* 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) 이하인 근로자  
\*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자 17%)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)
-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

#### ▶ 공제대상 주택

-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- ☞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
### 절 세 효 과

☞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102만 원

- 6,000,000원 (50만 원×12개월) × 17% = 1,020,000원



##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
### 사례 ④

무주택 세대주인 F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\*(5억 원)을 취득하고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,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

\* 2021.1.1.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



### 안 내

#### ▶ 공제대상 주택

-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
  -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⇒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
  -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⇒ 5억 원 이하
-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\*을 보유 ⇒ 공제 불가
  - \*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

#### ▶ 소득공제 혜택

-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

### 절 세 효 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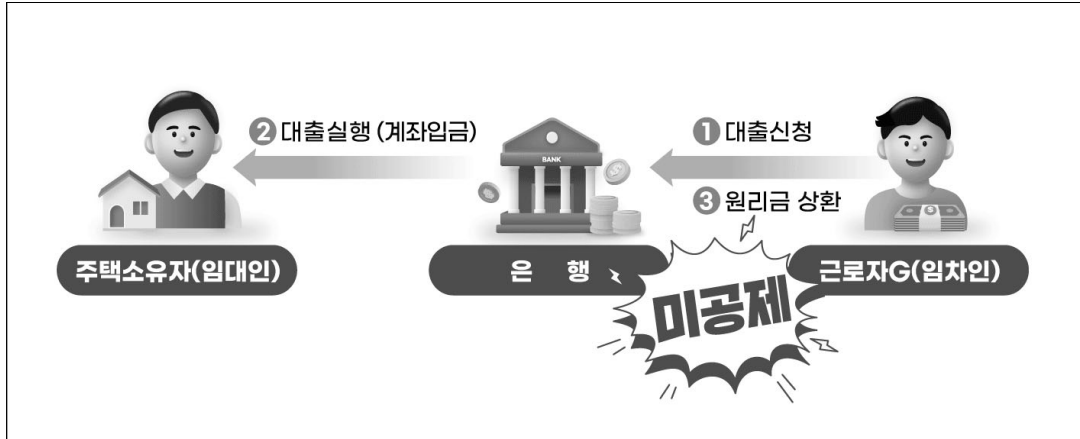
☞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33만 원 (평균 실효세율 7% 가정)
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: 480만 원\*

\*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 480만 원 (40만 원×12개월) 전액 공제

##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
**사례 ⑤**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,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



- 안 내**
- ▶ 공제대상자
    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    - 일정 요건의 세대원\* 및 외국인 포함
    - \*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
  - ▶ 공제대상 주택
    -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.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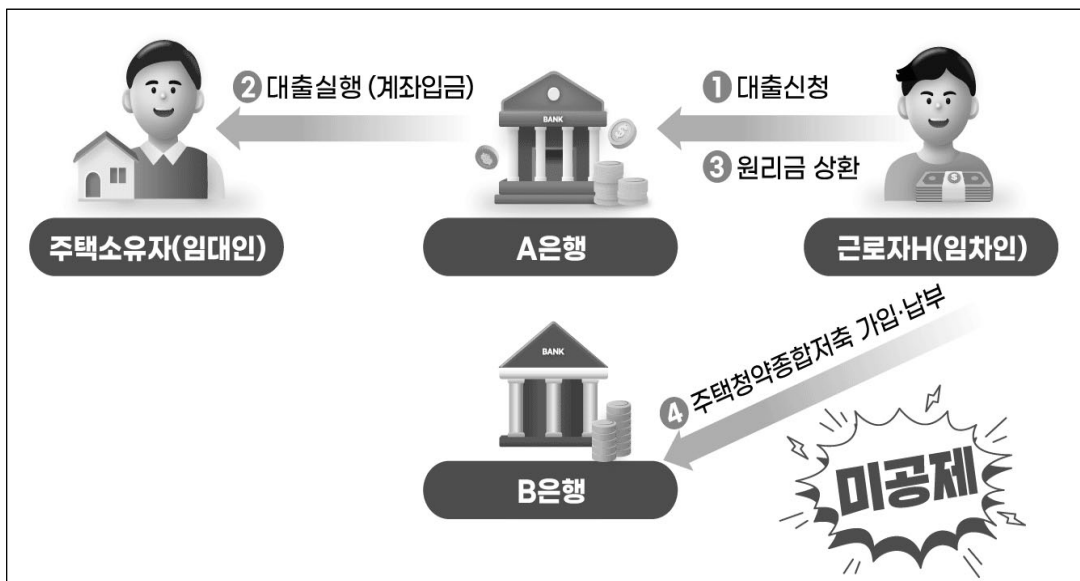
- 절 세 과**
- ☞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28만 원 (평균 실효세율 7% 가정)
  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: 400만 원\* (한도 400만 원)
  - \*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,200만 원 (100만 원×12개월)의 40% 공제





##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

사례 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고, 2023년 1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음



## 안 내

## ▶ 공제대상자

-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(2023년 기준)
  -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(12. 31. 기준)
  -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(본인 명의로 한함)
- ※ 2015.1.1.이후 납입 ⇒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
요건 필요

절 세  
효 과

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: 7만 원 (평균 실효세율 7% 가정)

- 소득공제 금액 : (① + ②) = 384만 원\* (한도 400만 원)

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: 288만 원

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: 96만 원

\* 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 +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) × 40%



##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」으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세요

-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(동의)한 경우 간소화자료(부양가족 포함)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  -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.
  -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·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.

### 1단계 근로자 명단등록 (회사→국세청, '23. 11. 30.까지)

-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\*을 '23. 10. 31. ~ 11. 30. 중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
  - \*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,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  - '23. 11. 30.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·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'24. 1. 14.까지 신규 등록·수정이 가능합니다.
-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(추가·삭제)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  - 회사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, 상기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  -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\* (4자리 숫자)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.
    - \* 분실 시 홈택스의 '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' 화면에서 확인 가능
  -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\*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

### 2단계 자료제공 확인(동의) (근로자 → 국세청, '24. 1. 19.까지)

- 근로자\*는 '23. 12. 1.부터 '24. 1. 19.까지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(동의)해야 합니다.
  - 최초 1회만 확인(동의)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.
    - \* 자료제공 취소는 '일괄제공 신청확인(동의)·취소·조회' 화면에서 취소 가능
  - 자료제공 확인(동의)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(동의)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됩니다.

- 올해는 더 손쉽게 자료제공을 확인(동의)할 수 있도록 손택스(모바일) 자료제공 확인(동의)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Push알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
- 근로자가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 접속하면,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(동의)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간편하게 확인(동의)할 수 있습니다.

### 3단계 자료 내려받기 (국세청 → 회사, '24. 1. 20.부터)

- 국세청은 '24. 1. 20.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며,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.
-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,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\* 필요한 경우 국세청(홈택스2담당관)에 요청하면 XML파일로도 자료 제공 가능

-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\*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 (\*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)





## 연말정산이 간편해지는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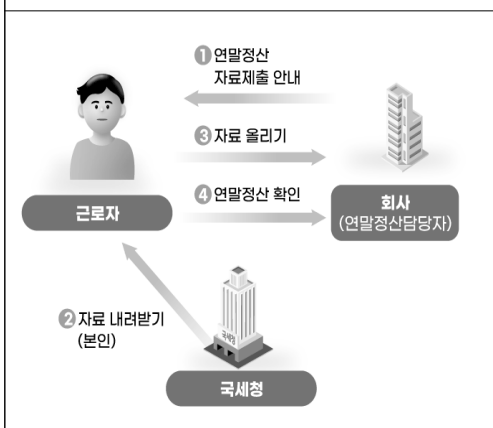
### 사례 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출 불편 해소

- (사례) 해외 출장 등 외근이 잦은 건설회사 A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정해진 자료제출 기간에 맞춰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
- (효과)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려 받기 할 필요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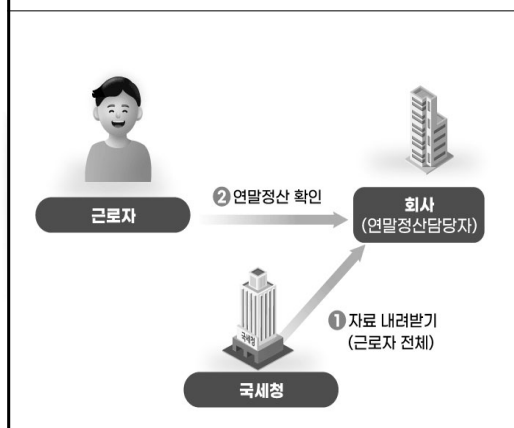
### 사례 ②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감소

- (사례) 연말정산 담당 B직원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간소화자료 제출토록 안내하고, 미제출 자에 대한 수회 개별 제출독려 안내로 어려움이 많음
- (효과)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 자료를 일괄 제공하므로 별도 제출 안내 필요 없이 단기간 자료 수집 및 회사 시스템 업로드 가능

#### 서비스 미이용하는 경우



####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





## 참고 1 -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

### ❶ 기부금 세액공제

-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: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  -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
  -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한도)
- 노동조합 조합비 :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.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'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
  -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· 연합단체 · 단위노동조합 · 산하조직 모두 포함
  - ② '23.1월~'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

### 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- 7.1.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- '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: 40% → 80%
- 변경된 공제한도

총급여	기본공제한도	추가한도
7천만 원 이하	300만 원	300만 원
7천만 원 초과	250만 원	200만 원

### ❸ 연금계좌 · 교육비 · 월세 세액공제
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 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→ 600만 원 (900만 원)
- 수능응시료 ·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→ 4억 원

### 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- 감면한도 상향 : 연간 150만 원 → 200만 원

### ❺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
종 전		개 정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2백만 원 이하	6%	14백만 원 이하	6%
46백만 원 이하	15%	5천만 원 이하	15%
46백만 원 초과~88백만 원 이하	24%	5천만 원 초과~88백만 원 이하	24%

## 참고 2 - (연말정산 미리보기) 접근 경로

- ①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
  - 접근 방법(회원용)
    - ①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 접속
    - ② 접속 후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> 편리한 연말정산 >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
  - 접근 방법(비회원용)
    -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
    - ② '편리한 연말정산' 메뉴 →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선택

## 참고 3 - (연말정산 미리보기) 서비스 이용 방법

### Step.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
- '23.1~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####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사례

- 맞벌이 부부인 A(남편)과 B(아내)는 대학생 자녀 C를 부양하고 있음.  
→ C의 신용카드 사용액 1,200만 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?
- ☞ B(아내)가 자녀 C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

<미리보기 계산결과>

납세자	총급여	신용카드 사용액	신용카드 소득공제액	□ 포함 시 소득공제액	절세효과*
A(남편)	8,500만 원	3,000만 원	131만 원	250만 원	8만 원 ↓
B(아내)	5,000만 원	1,500만 원	38만 원	218만 원	13만 원 ↓

\* 실효세율 7% 가정

계산방법 1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→ ② 지난 3개년 근무처 선택('20년, '21년, '22년)

- 근무처를 선택한 후 적용하기(③)를 누르면,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## 계산방법 2

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→ ② 총급여액 입력·적용

-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(③)를 클릭하면 1월~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되며, 10월~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(④)후 계산하기(⑤)를 누르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(⑥)됩니다.
- 절세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, 소비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, **Step.02 가기** (⑦)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.

## Step.02

##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
□ 총급여액·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, 소득·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
## 계산방법 1

## 총급여와 기납부 수정

- 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 → ②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→ ③ 적용하기
- 연말까지 예상되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## 계산방법 2

## 부양가족 수정

- ① 인적공제 수정 → ② 변경사항 입력 → ③ 부양가족 공제자료 수정사항 반영
-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채움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계산(③)할 수 있습니다.

## 계산방법 3

## 소득·세액공제 항목 수정

- ① 공제항목 수정 → ② 변경사항 입력 → ③ 적용하기 → ④ 계산하기·저장
-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하여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## 계산방법 4

## 납부(예상)세액 계산 (①계산하기 클릭 → ② 세액 확인)

- 모든 공제항목 내용을 반영한 후 계산하기(①)를 클릭하면 납부(환급)예상세액(②)이 자동 계산됩니다.

### Step.03 항목별 절세 도움말(Tip)

-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지별 급여·공제금액·세금납부 추이 등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, 유의할 사항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형을 알려드립니다.

## 참고 4 - (간소화자료 일괄제공) 명단 등록·관리 방법

### 1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

#### 접근 경로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연말정산 일괄제공 → (회사용)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

#### 유형별 이용 대상

- 유형 1: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
- 유형 2: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
- 유형 3: 전년도 등록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

#### 유형 1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

① '직접 입력' 선택 → ②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→ ③ '자료추가' 선택 → ④ '근로자 명단 제출하기' 선택하여 완료

#### 유형 2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

① '엑셀파일' 선택 → ② '찾아보기' 선택하여 이미 작성해둔 엑셀파일\*을 찾아서 선택 → ③ '엑셀 명단 제출하기' 선택하여 완료 (④ '검증결과 조회'로 오류 여부 등 확인)

\* 작성해둔 엑셀파일이 없는 경우: '엑셀서식 내려받기'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명단 작성 후 업로드

#### 유형 3 전년도 등록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

① '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' 선택 → ② '전년도 명단 제출하기' 선택하여 완료 → ③ '검증결과조회'로 오류 여부 등 확인





## ② 연말정산 대상 명단 관리

### 접근 경로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연말정산 일괄제공 → (회사용)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내역 확인 및 관리

① '조회하기' 선택 → ② 제외(자료 제공대상에서 제외) 또는 ③ 제외취소(자료 제공대상 복구) 선택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거나, ④ '명단 내려받기' 선택 가능

## 참고 5 - (간소화자료 일괄제공) 신청내역 확인(동의) 방법

### ① 홈택스로 확인(동의)하는 방법

#### 접근 경로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연말정산 일괄제공 → (근로자용)일괄제공 신청확인·동의·취소·조회

①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→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'동의함' 선택 → ③ '확인(동의)하기' 선택하여 완료

### ②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로 확인(동의)하는 방법

#### 접근 경로

국세청 손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서비스 →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(동의) 및 조회

## 참고 6 - 주요 연말정산 일정

☐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,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일 자	연말정산 업무
'23. 10. 31.	▪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
'23. 10. 31.~ 11. 30.	▪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('24.1.14.까지 수정 가능) ▪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
'24. 1. 1.~'24. 1. 7.	▪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(간소화자료) 제출
'24. 1. 15.	▪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'24. 1. 15.~ 1. 17.	▪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
'24. 1. 15.~ 1. 18.	▪ 간소화자료 수정·추가 제출
'24. 1. 18.	▪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
'23. 12. 1.~'24. 1. 19.	▪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(동의)
'24. 1. 20.	▪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
'24. 1. 20.~ 3. 11.	▪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
'24. 2. 28.	▪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
'24. 3. 11.	▪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
## 참고 7 - 자주 묻는 질문

### [연말정산 「미리보기 서비스」 관련 1~6]

- |   |   |
|---|---|
| 1 | <p>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」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 금액인가요?</p> <p>○ 신용카드 등(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포함)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 이고,<br/>-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,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</p> |
|---|---|



2

〈Step.01〉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'0'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의 이하이거나,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  - ※ 총급여 25%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직불카드 등 30%, 문화비 30%, 전통신장 40%, 대중교통 80% 소득공제 적용
- 〈Step.01〉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. 따라서 〈Step.02〉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〈Step.01〉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

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」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?

-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('22년)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.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,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4

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」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-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, 도서·공연·신문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 사용분,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\*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「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」를 2023. 10. 31.(화)~11. 30.(목)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.

\* (원2인)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, 가맹점 정보 등이 미(지연)등록되어 전통시장,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

[접근 경로]

국세청 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→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

-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

5

「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」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 자녀 (2005. 1. 1. 이후 출생)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「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」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[접근 경로]

(PC) 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(미성년 자녀/본인인증수단/팩스신청)

(모바일) 손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서비스 →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

- 다만, 성년이 된 자녀(2004. 12. 31.이전 출생)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6

<step.04>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·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- <Step.04>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,
  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確定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,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.
- 따라서,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·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.

**[ 일괄제공 서비스 7~13 ]****< 근로자 >**

7

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(동의)을 해야하는 이유는?

-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(동의)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, 확인(동의)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(동의)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.
-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\*에서 근로자별 확인(동의)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\* 홈택스의 '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'에서 가능

8

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(동의)를 하려고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(동의)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-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

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?

- 부양가족이 '24. 1. 19. (금) 이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,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.

10

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(동의)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?

-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(동의)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.

## <회 사>

11

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?

-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, 등록 이후 입·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'24. 1. 14. (일)까지 홈택스에서 추가·삭제·변경이 가능합니다.
-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(동의)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
12

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요?

- 직원의 입·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.
  -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'전년도 명단 불러오기' 기능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3

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\*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- \*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
  -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